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연극 일반) 시범공연지원 심사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연극(일반)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심의 : 2016. 3. 3(목) 10:00, 대학로예술극장 지하1층 중연습실
 - 2차 심의 : 2016. 3.23(수) 14:00, 이음센터 3층 커뮤니티룸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연극(일반)분야에는 총 101개의 단체가 응모했다. 1차 서류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심의로 2단계 심의를 진행했으며, 심의기준은 작품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30%), 작품의 예술성(50%), 작품의 파급효과(20%)에 두었다. 1차 심의에서는 지원신청서와 희곡을 검토하여 프레젠테이션 심의대상 작품을 선정하였고, 2차 심의에서는 공연계획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시범공연 최종 지원 작품을 선정하였다.

1차 서류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5명의 심의위원은 사전에 지원신청서와 희곡작품을 꼼꼼하게 살폈다. 독창적인 상상력과 연극성을 보여준 작품들이 많았기에 흥미로운 과정이었다. 심의위원 전원의 추천을 받은 뛰어난 작품도 있었지만 미완성으로 느껴질 만큼 부실한 작품도 있어 작품 간 편차는 매우 컸다. 이번에 응모한 단체의 작품들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의 해체, 자살, 장기밀매 등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 작품, 그리고 사랑, 희망에 의한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작품이다. 이 시대 연극이 치열한 현실인식을 담아내야 하는지, 우리 삶 속 위안의 매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였다.

긴 시간 의견 조율을 통해 총 15개 작품을 1차 통과작으로 선정했다. (15개 작품에는 시범공연 진출이 자동 확정된 2015년도 대본공모 수상작 5편이 포함) 올해부터는 각색 작품뿐만 아니라 난버벌 작품으로까지 지원대상 영역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했다.

2차 프레젠테이션 심의대상이 된 작품은 형식면에서 토론극부터 난버벌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심의는 각 작품의 연출가, 작가 혹은 프로듀서가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심의위원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심의위원은 지원단체가 작품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준비하였는지 확인하고, 예술적 완성도와 레퍼토리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선정작의 다양성을 위해 작품의 수준 차이가 없을 경우 유사한 소재나 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12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선정작들은 충실한 연출안을 발표해 작품 제작의 신뢰도를 높였고, 흥미로운 대본을 바탕으로 한 연극적 상상력을 제시했다. 레퍼토리화, 관객 개발 등 작품의 파급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심의는 희곡이 무대로 나아가는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다. 2단계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12개 작품이 시범공연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해본다.

201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연극(일반)분야 심의위원 일동